

- 주요 뉴스: 연준 파월 의장, 제약적 통화정책 과도하게 유지하면 경제고용 악화될 우려
  - 미국 재무장관, 노동시장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영향은 이전보다 감소
  - ECB 주요 인사, 자동적인 금리인하는 기대난.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전망
  - Moody's, 프랑스 부채 전망을 경고. 정치적 교착에 따른 부정적 영향 고려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연준 파월 의장 발언, 기업 실적 기대 등이 영향
  - 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2bp]
 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2/4분기 기업 실적 기대, 금융주 강세 등으로 상승  
유로 Stoxx600지수는 프랑스 정국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0.9% 하락
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관련 다소 신중한 발언 등으로 상승  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1%, 0.3% 하락
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점 미언급 등이 반영  
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4bp 상승

※ 뉴욕 1M NDF 증가 1381.4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3.8원, 0.02% 상승). 한국 CDS 강보합

|    |      | 7/9일    | 7/8일    | 전일대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7/9일    | 7/8일    | 전일대비  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5,577.0 | 5,572.9 | +0.07%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4.30%   | 4.28%   | +2bp   |
|    | 유럽   | 511.76  | 516.43  | -0.90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2.58%   | 2.54%   | +4bp   |
|    | 중국   | 2,959.4 | 2,922.5 | +1.26% |                 | 영국    | 4.16%   | 4.11%   | +5bp   |
|    | 일본   | 41,580  | 40,781  | +1.96%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35bp    | 35bp    | +0bp   |
|    | 한국   | 2,867.4 | 2,857.8 | +0.34%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57bp    | 58bp    | -1bp 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105.13  | 105.00  | +0.12%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-       | 401     | -      |
|    | 유로화  | 1.0813  | 1.0824  | -0.10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12.51   | 12.37   | +1.13% |
|    | 엔화   | 161.33  | 160.83  | -0.31%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81.41   | 82.33   | -1.12% |
|    | 위안화  | 7.2726  | 7.2681  | -0.06%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57.8   | 462.2   | -0.95% |
|    | 원화   | 1,383.5 | 1,383.1 | -0.03%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2,364.1 | 2,359.1 | +0.21%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연준 파월 의장, 제약적 통화정책 과도하게 유지하면 경제·고용 악화될 우려

- 파월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 완화와 고용시장 냉각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. 아울러 좀 더 긍정적 지표들이 발표된다면 인플레이션(연율)이 2%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발언
-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가 유일한 위험은 아니며,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너무 강하게 혹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경제활동 및 고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. 이에 더 이상 인플레이션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고 첨언
- 아울러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신호를 발신하지는 않을 것이며,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. 이번 발언으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부각되었으나, 일부에서는 아직 이를 확신할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(Societe Generale)
-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그 동안 물가안정에 집중했지만, 향후에는 물가안정과 최대고용이라는 2가지 책무의 균형 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(Bloomberg Economics). 연준은 계속해서 시장 참가자들로 하여금 연말 금리인하를 대비하도록 유도(JPMorgan)
- 한편 대형은행 자본확충 계획 수정 관련하여 규제 당국은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평가. 또한 연준의 독립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고 미국의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는 증명된 방법이라고 발언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미국 재무장관, 노동시장 호조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은 이전보다 감소

- 옐런 장관은 노동시장 호조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는 과거만큼 강하지 않다고 언급. 팬데믹 직후 노동수요가 매우 강했으나, 지금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. 한편, 세금감면은 재정적자 축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피력
- 중국에 대한 AI 규제강화는 명확하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. 미국의 군사정보 및 사이버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기술에 집중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

## ■ Citi, AI 관련 주식은 이익을 확정할 시기. Goldman Sachs는 주가 횡보 예상

- 드류 페팅 스트래티지스트는 AI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심리가 '19년 이후 최고 수준인데,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기에는 변동성 확대가 발생한다고 분석. 아직 버블 신호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,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
- Goldman Sachs의 린제이 로스너 멀티섹터 책임자는 기업이익 성장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하반기 미국 주가는 횡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

## ■ ECB 주요 인사, 자동적인 금리인하는 기대난.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전망

-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나겔 위원은 ECB의 금리인하 경로가 자동 항법장치와 같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. 한편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파네타 위원은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, 수요 약화 등으로 이 또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

## ■ Moody's, 프랑스 부채 전망을 경고. 정치적 교착에 따른 부정적 영향 고려

- 프랑스의 정치적 여건으로 재정 및 부채 관련하여 상황이 악화된다면 이는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'안정적'에서 '부정적'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고 지적. 특히 이번 총선으로 프랑스는 전례 없는 국면에 직면해있다고 분석

## ■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SAS의 설문조사, 중국이 생성형 AI 사용에 가장 적극적

- 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83%로 1위. 이는 중국의 생성형 AI 분야가 빠르게 성장한다는 의미

## ■ 일본은행 채권시장 참가자 회의, 적정 수준의 채권매입 축소 수준을 논의

- 주요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회의를 가졌으며, 이를 통해 일본은행이 고려할 채권매입 축소 금액은 2~3조엔이 적절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. 다만 어떤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받았는지 여부는 비공개

## 주요 경제지표

### ■ 주요 경제 이벤트(7/10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파월 의장 및 보우먼 이사,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 발언
- 중국 6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, 뉴질랜드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### ■ 미국 트럼프 집권 2기, 1기 사례 고려 시 시장에 긍정적 효과도 가능 - Financial Times

(Why Trump 2.0 might be good for investors)

- 트럼프 집권 1기 출범 당시 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은 정책방향이 경제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. 하지만 성장률과 물가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고, 주가도 큰 폭 상승.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러한 성과가 가능
- 이와 같은 기대는 미국 경제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산업 분산도 좀 더 강화되었다는 점에 기인. 또한 자본시장이 창업과 혁신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긍정적. 아울러 과거에 비해 기업의 금리 민감도가 저하. 미국의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시스템 역시 극단적 정책을 제어하는데 기여

### ■ 미국 주택시장 위기, 지불 능력을 악화시키는 저임금에 기인 - 블룸버그

(The US Housing Crisis Is Really About Low-Wage Jobs)

- 최근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주로 공급측 요인을 개선하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.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 하더라도 임대료 대비 저임금 노동자의 과도하게 낮은 소득 수준이 문제라고 지적
- 또한 지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임대주택의 공급이 지난 10년간 감소했는데, 이 또한 공급이 증가해도 임대료 하락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을 시사.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노력도 중요하나, 지난 15년간 지속된 최저임금 정책의 개선 등 실거주자 소득 개선을 위한 근본적 노력이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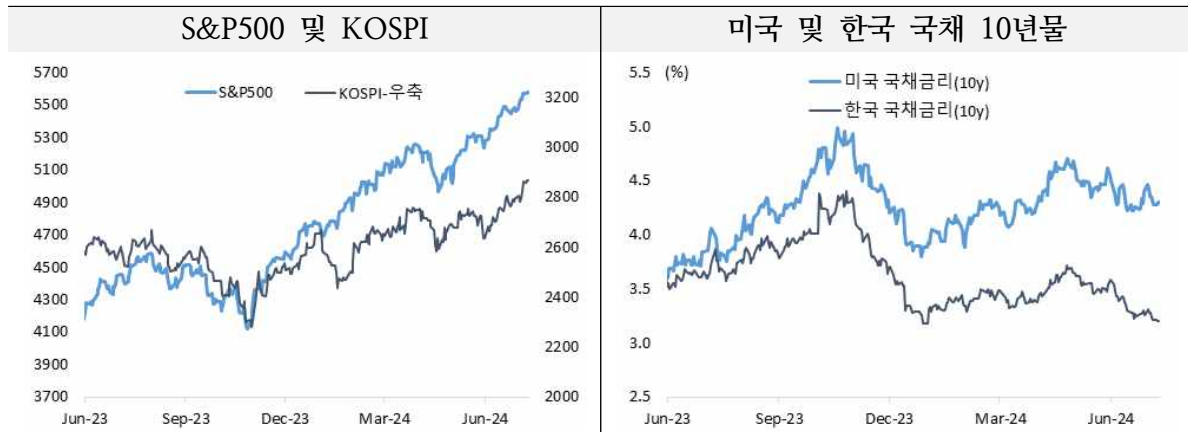
### ■ 중국 인민은행, 통화 안정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정책 딜레마에 직면 - Reuters

(China's central bank is stuck in a policy dilemma)

- 인민은행은 장기 국채를 차입하고 이를 매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단기 채권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발표. 이로 인한 대차대조표 축소는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신호로 해석. 아울러 이는 위안화 환율 안정을 유도할 수 있으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우려
- 한편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이상적. 다만 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통화 강세 및 인민은행의 통제력 강화 등과 상충하는 문제를 초래. 한편, 인민은행의 시장개입이 시작되면 금리 변동 축소 및 인민은행 통제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

- **인도 경제, 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. 대내외 도전 극복이 중요 - Financial Times**  
(Why India will become a superpower)
  - 인도 모디 총리는 '47년에 독립 100주년을 맞이하면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선언. 실제로 UN 예측에 따르면, 인도의 인구는 '50년에 약 16억 명을 상회하고 이에 따라 경제규모도 확대될 전망. 해당 시기에는 인구 증가로 늘어난 GDP가 미국의 GDP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
  - 한편,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전망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등은 인도의 수출위주 성장을 저해할 소지. 다만 인도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이 존재
  -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부적으로 교육 및 인프라 개선, 투자 환경구축 등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주장. 또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도 중요한 선결 과제
- **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, 장기국채 매수 권고가 증가 - 블룸버그**  
(Investors Say Sell Political Noise, Buy Long US Bonds)
- **미국 사모펀드의 장기 고성장, 거품 붕괴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 - 블룸버그**  
(The Private Equity Bubble Is About to Deflate)
- **중국 3중전회, 성장 촉진을 위한 포괄적·구체적 개혁안 제시가 요구 - Financial Times**  
(China's plenum must offer action not rote slogans)
- **싱가포르 항만의 혼잡, 공급망 혼란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초래할 우려 - Financial Times**  
(Singapore port congestion threatens to gum up global trad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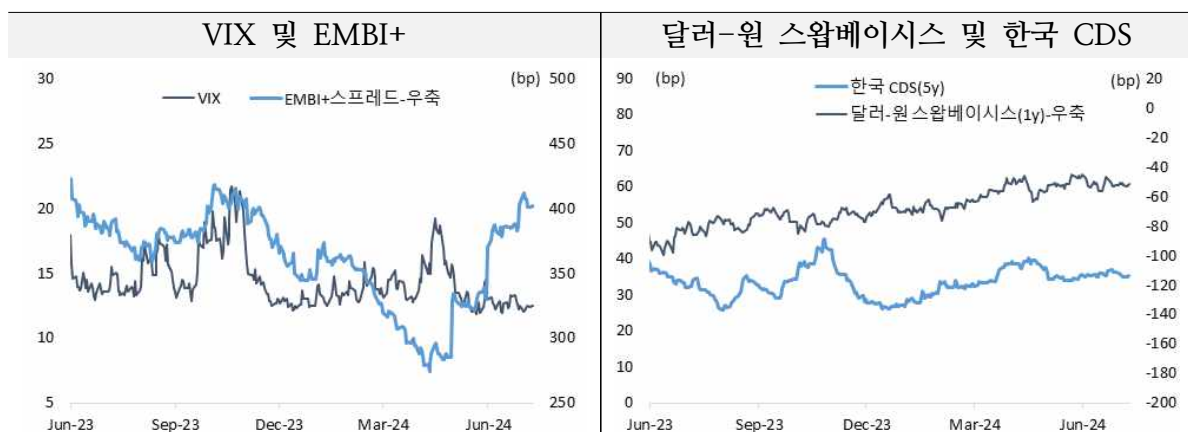
## 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[jsjeong@kcif.or.kr](mailto:jsjeong@kcif.or.kr)